

---

# 공공미술위원회 회의록

---

2018. 2.

**문 화 본 부**  
**(디자인정책과)**

# '18년 제2차 공공미술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 ◆ 일 시 : 2018. 2.21. (수) 10:00~18:00
- ◆ 장 소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살림터 2층 세미나룸
- ◆ 참 석 : 공공미술위원회 위원장 등 18명
- ◆ 진행순서
  - 10:10-12:00 자문 및 심의(3건)
  - 14:30-17:50 보고(3건)
- ◆ 상전안건 : 심의 1건, 자문·보고 5건
  - 심의(1) : 전봉준 동상 건립
  - 자문(2) : 우이신설 문화예술철도 운영 기본방향, 역사적 동상 심의방안
  - 보고(3) : 한강 공공예술공간 조성사업, 천호대로 상부 작품기획안 심사 결과, 녹사평 공공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서면심의 결과
- ◆ 회의결과 : 부결 1건
  - 전봉준 동상 건립 : 보완 재심의

## 위원 발언 내용

### 자문 1. 우이신설 문화예술철도 운영 기본방향

OOO : 작년 9월 개통 후 아트스테이션 전시로 협력했음. 올해 디자인정책과에서 맡아 운영함. 공공예술프로젝트로 확대함. 공공예술프로젝트, 문화예술 광고매체 운영으로 나뉨. 전체 7억 예산, 공공예술프로젝트 성북문화재단과 협의, 거리예술공연은 문화정책과에서 운영. 올해 지속추진, 예를 들어 보문역사에서 비보이, 클래식 공연 등이 이루어짐. 자문 3가지임. 성신여대 김영나 작품과 같이 아트월 프로젝트, 우리동네 스토리는 보문역,

아트스테이션은 메시지가 있는 포스터 작품 전시로 추진예정.  
문화예술광고매체 운영은 문화본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영상으로 제작, 홍보, 모서리광고, 차량랩핑 테마열차(달리는  
미술관 등)

아트월 프로젝트 성신여대 작품교체, 장소발굴, 삼영사거리역,  
북한산보국문역을 발굴하여 아트월로 변경하려고 함. 추진하는  
방식은 예술컨텐츠 기획사의 제안이나 커미셔너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함.

우리동네스토리, 북한산우이역, 4.10 민주묘지역에 추진하려고  
함. 등산객이외에 젊은 층을 활용하는 컨텐츠 만들려고 함.

아트스테이션, 우이신설선 역사의 포스터 교체, 서울시내 승차대  
일부 전시, 승차대 선정필요. 큐레이터 대상 전시기획 아이디어를  
공모할 예정임

1년 동안 계속 운영해야하기에 시립미술관 및 산하기관의 협력을  
받아 전시기획을 받아 운영하려고 함.

000 : 사업에 대한 큰 그림이 잡히면 이해가 쉽게 되는데, 단편단편을  
이해하기에 무리가 있음.

000 : 이 사업은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몇 개 역사 추진했고 금년에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를 논의하는 것임. 처음부터 외부기획사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전제함. 보완사항으로 컨텐츠에  
관련해서는 전문가를 영입하여 추진하자는 것임. 전체 프레임이  
명확하지 않음. 예를 들어 비보이 공연 등이 들어가 있어서  
순서를 정해야 할 것 같음

000 : 5개의 프로젝트 중 2개는 활동, 체험형 프로그램임. 시민참여는  
성북문화재단, 거리예술 공연도 문화정책과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장소만 제공하는 형식으로 기획에 관여할 수 없으며, 아래 3가지  
사업 진행에 대한 선정이 필요함

000 : 문화철도 사업 중 공공미술 사업에 대해 자문을 요청함. 철도공간

안에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문화철도 사업 중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던 것을 받아 추진하고자 함. 기획사에 대행을 하는 것은 계약법상 예술가와 계약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음.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큐레이터 등 전문가가 하고, 운영업체에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000 : 예술기획이 중요한 사업이라 기준을 높게 잡지 않으려고 함.

000 : 기념행사 공모 심사를 간 적이 있는데 공연, 전시 등 예산이 많지 않는데, 행사를 응모하는 업체가 들어와 어쩔 수 없이 선정할 경험은 있는데, 공모대행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출 필요가 있음. 양적 평가가 비중이 높을 경우 통상적인 행사 업체만 계속 입찰하는 문제가 있어서 공공미술관련 기획사 공모시 그 점 각별히 감안 바람. 3개를 나누었지만 1,2번은 콘텐츠가 다르지만 벽면에 랩핑하는 형태로 분위기를 바꾸거나 또는 일부 미리 만들어진 액자에 작품을 바꾸는 것이고, 아트스테이션은 지하철과 상관없는 사업인지

000 : 아트스테이션 전시는 이미 역사내에 설치되어 있는 액자의 포스터를 교체하는 사업이고, 승차대는 원래 아트스테이션 전시의 모태가 되는 사업으로 올해전시는 전시장소에 승차대를 포함시키는 형식으로 진행예정임.

000 : 작년에도 공공예술프로젝트와 문화예술 광고매체 운영 사업이었음.

000 : 작년 우이신설선이 개통을 했고 경전철이라 2량만 있음.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됨. 서울시에서 지하철역이나 지하철을 활용해서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기존 지하철은 복잡해서 추진하기 어려움. 신설역은 몇 개역을 중심으로 갤러리를 추진했음. 신설역은 천경자 작품 전시하고, 김영나 작품을 통해 타이포를 통해 전시를 했고, 새로 생긴 차량에 차량 랩핑을 하여 추진했음. 북한산, 미술관, 도서관 등을 랩핑했고, 몇 개역은 체험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했음. 작년

사업은 시범이었지만 성과가 있었고 지속하고자 7억 예산이 추진되었음. 아트스테이션은 버스승강대 156면을 활용하여 추진하다가 버스승차장과 우이신설선 벽면에 아트포스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확장하여 추진하였음.

000 : 문화철도 사업은 다른기관에서 추진하다 올해 디자인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것인지

000 : 서울 교통공사에서 추진하는 문화철도 사업과는 별개임. 테마역사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과학, 산업 등 특정사업 리뉴얼 사업과는 성격이 조금 다름. 작년 우이신설선 시범적 사업이 잘되고 있어서 다른 역사로 확대하고자 함

000 : 작년 우이선 사업의 경우 다른 기관에서 전체를 추진하고 몇 개역을 디자인정책과에서 꾸미는 것을 자문회의에서 자문한 것으로 기억함. 다른 기관에서 추진하다가 전체 사업을 맡은 것인지

000 : 작년에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다 올해부터 전체가 넘어와서 디자인정책과에서 추진함.

000 : 아트월, 아트스테이션이 있는데 시민입장에서 포스터, 홍보, 차량랩핑 등 광고와 관련된 것이 있음. 아트사업, 광고 등을 디자인정책과에서 전체를 맡는 것인지.

그렇다면 역사마다 테마를 정했는지. 어떤 곳은 아트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실험적, 어떤 곳은 역사 테마를 추진하는 등 디자인정책과에서 기획을 정하고 자문을 받는 것이 아닌지 예를 들어 4.19는 역사관련 테마라고 하면 이해가 됨. 전체 기획을 알 수 없는 상황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운영대행사를 추진한다면 한 업체한테 주는 것인지

000 : 광고는 상업광고가 아니라 예술관련 행사, 공연 등 콘텐츠를 홍보함. 공공기관에서 문화예술공간에 대한 광고를 추진하며, 돈을 받는 것이 아님. 콘텐츠 기획을 추진하지만 디자인 실비는 각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한 업체에 맡겨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13개의 역사라 역사별로 테마를 다 정하면 좋겠으나, 개별사업을 하면서 큰 그림을 그리는 방식으로 역사의 특성상 스토리가 충분한 곳은 담당이 발로 뛰면서 테마를 정함. 아트스테이션이나 전시하기 좋은 역사는 아트전시로, 문화자원이 많은 곳은 그것을 테마전시로 접근하고자 함.

- 000 : 기본 방향을 잡을 때 입장이 정리되어야 함. 행정적 기획을 할 것인지 콘텐츠 기획을 해서 실질적으로 추진할 것을 정할 것인가 애매하게 뒤섞임. 행정적 기획이라면 가이드라인을 잡고 디자인정책과에서 직접 기획을 하고 실행할 사람을 찾았다면 자유롭게 아이템을 기획하면 됨.
- 000 : 매년 예산한도내에서 단편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우려가 됨. 전체를 연속적인 스토리로 엮을 수 있는 주제선정이 필요함. 제로베이스에서 역사를 어떤 스토리를 엮어갈 것인가를 우선 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 시행사 선정은 차후의 문제임.
- 000 : 디자인정책과에서 큐레이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프레임은 짜는 행정적 기획을 하면 좋겠음. 기획공모와 실행공모를 분리하여 기획공모를 추진하는데 최소 갖추어야 할 프레임을 짜서 기획공모를 추진하고 그 결과의 프레임들이 자문의 안전으로 올라와서 적정여부를 하는게 좋을 것 같음. 기획공모에서 공모자의 제안을 자문 받아야함. 디자인정책과에서 전문가와 행정가의 범주를 나누는 것이 필요함.
- 000 : 작년까지 과에서 개별 사업기획을 하고 업체선정하고 작가를 선정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 그 상황을 인정하고 시작하게 됨. 이런 방식은 우리 스스로 더 많은 가능성을 차단하고 일을 시작하는 것으로 행정적 편의에 따라 추진하는 것임. 우이신설선 사업은 제로베이스로 놓고 기획자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좋겠음. 작년 사업의 반응이 좋았다고 추진한다면 작년과 비슷비슷한

프로젝트일 수 밖에 없고 참여하는 작가나 디자이너들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

## 자문 2. 역사적 인물 동상 건립 심의방안 검토

- 000 : 공공미술위원회가 단순히 조형적이고 미학적 판단을 넘어서는 역사적 평가와 관련된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심의는 우리 위원회의 영역을 넘어가는 것으로 판단됨. 지난 14일 역사학자 몇 분과 공공미술위원회 일부 위원의 자문을 받아 심의절차 및 기준에 대한 자문을 받았음
- 000 : 14일 자문 후 심의기준안 등을 추가했음. 심의절차는 건립주체가 주관기관에 심의를 요청함. 건립대상에 대한 역사적 평가, 장소적 연관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 증빙자료 제출 추가했음. 이후 국사편찬위원회 등 역사기관의 자문을 받아 통합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절차를 개선하였음.  
심의기준은 인물에 대한 역사적 고증, 장소적 연관성은 역사전문가의 객관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기준에 포함시켰고, 작품의 예술성,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기존 기준을 포함하고 생애주기, 사후관리 문제에 대한 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음.
- 000 : 2월 14일 몇몇 전문가를 만나 자문을 받았고, 위원분들이 많은 고민을 해주었음. 장소성에 대해서는 인물의 탄생지,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 등 주요 활동성 등 누가 봐도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공공미술위원회에서의 규모, 조형 등의 역할 외에 설명문과 안내판도 역사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생애주기, 철거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해 자문을 주었음.
- 000 : 이날 역사전문가 의견 중 근현대사 인물은 역사적 평가가 엇갈려 단 한명도 지폐로 제작되지 못했다고 함. 동상도 지폐 만큼이나

공공성을 담보하지 않고서는 추진하기 어려움. 동상은 한번 세우면 100년이 넘게 세워지게 되는데, 후손들의 공공공간을 미리 점거하고, 공공재로서의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함. 몇가지 기본적인 기준은 있으나 논란이 되는 지점 특히 정치와 관련된 논란들은 큼. 역사적 평가가 끝난 다음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가 가장 큰 논의였음. 두 번째 장소성 문제임. 인물과 장소와의 연관성의 타당한 근거가 중요함. 세 번째 주민들의 지지가 있어야 함. 동의를 있어야 함. 3가지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함.

- 000 : 관할구역에 10,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 000 : 만명은 상징적인 의미임. 일정적인 기준 이상의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제안임 1% 또는 10% 동의를 얻는 등
- 000 : 온라인 등을 활용한다면 편해져서 절차상 어렵지는 않음
- 000 : 국민청원운동 같이 만명을 채운다면 아무리 논란이 되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은 우려가 됨
- 000 : 관할구라고 한다면 종로구 사람만 동의하는 것인지. 서울시민이 되는 것인지. 기술적인 방법이 필요함.
- 000 : 전체적 지지가 있어야겠지만 지역에 설치 지지의 포지션이 필요함. 서울시 2/3이 찬성하지만 당사자인 관할 지역주민은 반대할 수도 있으니 동시에 추진해야함.
- 000 :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는 것도 어려움.
- 000 : 뚜렷한 민원 대상이 되는 문제는 관련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함. 지역에 직접적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해야 함. 최소한 주변 행정지역 단위 속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 직접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1차로 설치 당사자가 최소한의 역사적 조사(검증)를 제출하고, 그 다음 절차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람이 바뀌고 그때 그때



바뀌므로 최소한의 절차와 기준을 두고 신청자가 신청하면 공공미술위원회에서 판단되는 경우도 있지만 역사적 동상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을 공공미술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음

- 000 : 제안을 할 때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준비를 많이 해야 하는 장치가 필요하고 조례를 만들 때 기존 동상을 없앨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함.
- 000 : 작품의 생애주기 개념이 있음. 신설건에 대해서는 시작과 끝을 정한다면 그 근거로 가능할 수 있음
- 000 : 생애주기와 철거는 다른 이야기임. 설치가 있으면 철거에 대한 기준도 같이 있어야 함. 절차에 대한 설명 필요함
- 000 : 시나 구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단체에서 동상의 필요성을 사업계획서에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신청을 하면 타당성을 조사하여 심의에 오는 것으로 2단계를 거침. 동상 건립의 경우 주관단체가 있고, 종로구에서 검토를 거쳐 공공미술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으로 함
- 000 : 행정기관에서 타당성을 거쳐서 한번 걸러서 심의에 올라와야 하는 2단계 절차임.
- 000 : 조각 등 예술작품을 공공부지에 설치하는 것과 동상, 역사적 기념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없음. 기존에는 예술작품에 대한 기준이 없었으나 조례가 제정되면서 기존 역사적 기념비 기준이 사라졌음. 심사기준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역사적 전문가의 자문을 어느 시기에 넣느냐에 따라 애매한 판단이 될 수 있음. 역사적 인물과 사건이기에 고증을 받아와야 한다는 것을 미리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공공미술위원회에서 역사적 고증을 받아오라고 하면 역사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이 좋은지 판단해 주기 원함.
- 000 : 두 번 모두 필요함. 사업주관 주체는 유리하게 지지하는 의견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려움.

공공미술위원회에서 추가로 역사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것이 좋음

000 : 역사적 자문을 받는 방식이 2가지임. 위원회 때 역사적 전문가를  
모셔서 자문 받는 방법과 절차에 미리 역사전문기관 자문을  
받아와야 한다는 기준임

000 : 후자가 적합할 것 같음. 주요 역사단체나 전문가의 몇 개 이상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000 : 먼저 건립대상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대한 내용과 장소적  
연관성은 심의에 대상이 되는 내용으로 보임. 동상 자체 형태나  
조형이나 형식이나 이런거 외에 역사적 평가 인물에 대한 평가와  
대상지와의 연관성, 주변에 대한 경관이나 조사에 대한 내용은  
심의 대상임. 역사 전문 기관의 자문은 위원회 앞선 선행 절차로  
기준을 마련했으면 함.

000 : 어떤 안전에 대해서 선행 절차 기준이 필요한지

000 : 필요시 소위원회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사전자문 받으면 됨.  
제출한 심의기준은 심의기준이기도 하지만 최초에 인물동상  
신청자에게는 양식이기도 함. 스스로가 대상 선정에 대한 타당성,  
장소성, 작품성 등을 작성해서 제출할 때 인물동상으로서 사업  
타당성 검사 여부를 사전에 시구 합동 자문회의를 통해 신중하게  
제대로 심의하였으면 좋겠음

000 : 타당성 검토를 1차(주관기관) 2차(공신력 있는 방식) 나뉘어서  
추진하면 어떤지

000 : 필요시 위원회에서 공신력 있는 5개 기관에 자문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임.

000 : 사업계획서 신청시 장소적 연관성에 대한 증빙자료만 받고 전문가  
자문은 제외하고, 두 번째 타당성 검토에 주관 기관이 전문가  
자문을 간이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사안에 따라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절차로 결정하면 좋겠음.

000 : 심의기준은 어떤지

000 : 인물을 기리는 동상을 계속 설치하는 것이 맞는지 가능하면 동상 설치는 까다롭게 하자라는 취지임.

000 : 의도는 공감하지만 사람들이 무엇보다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000 : 심의절차와 기준에 대해 자문과 검토를 통해 어느정도 윤곽을 잡았으나 그 근거로 심의 여부는 어려움.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와 이 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절차와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지

000 : 사업계획서 접수 시점의 조례내용 수준으로 하면 될 것 같음. 공감대 형성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청원하고 간절히 원한다는 정서가 있다면 시민들이 논의하는 구조로 토론회의 형식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함.

000 : 동상 심의에 오늘 논의한 기준을 적용시켜보고 보완하면 어떤지. 세부 지침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공공미술위원회에서 권위를 갖고 결정해야 함. 정치적 논란이 있는 역사적 인물 경우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중대하게 결정해야 함.

000 : 역사적 평가에 논란이 있는 부분은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논의 기준에 대해 동의를 해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음.

000 : 위원회에서 역사적 논의를 심의하는 것은 아님. 근거와 타당성은 주체자가 확보해야 함. 역사적 논란이 있는 것은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 해야 함

000 : 논란 여부를 심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가 결정해야 함. 논란에 대한 부분은 3~5개의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야 하며, 우리 위원회에서 역사적 논란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님

- 000 : 역사적 논란여부는 상식적으로 인지할 수 있으니, 전문기관의 고증을 받아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 000 : 환경조형물 심의에 동상이 합쳐진 것임. 예전에는 시설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 기준이 없어지고 동상이 예술작품에 포함되어 심의위에 올라 온 것이어서 최종 위원회 심의내용은 예술작품의 심의로 추진해야 함.
- 000 : 제출자료에 선정의 타당성 및 장소의 근거는 역사쪽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음
- 000 : 예술성, 공공성, 사후관리계획 등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정하겠음.

#### 심의 1. 전봉준 동상건립

- 000 : 1월 16일 신청이 접수되었고, 장소는 종각역 영풍문고 근처이며, 사업비 3억원, 높이 2.8m로 주관기관인 종로구청의 검토내용은 계획서에 정리되어 있음.
- 000 : 대상지는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데 장소의 적정성은 확실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장소에 적합한 것인가를 명확히 해야함. 차후에도 일관성 있는 기준을 위해 지금이라도 역사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게 하는 것은 어떤지
- 000 : 신청 건립위원회의 심의서류가 미흡함. 장소의 적정성 등이 있어야 함. 장소에 대한 고증자료가 없음
- 000 : 13페이지에 전옥서터였다는 자료가 있으나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음
- 000 : 그 당시 경계가 안맞고 길도 없었고 남대문로의 보신각이라는 큰 장소성과 동상들이 나온것과는 맞지 않음. 역사적 고증과 옛 지도를 통해 전옥서터와 보신각 위치, 동상 예정지의 위치 등의 자문이 있어야 설치되는 장소에 대한 타당성을 인지할 수 있고,

옆 건물과 주변건물과의 이해관계 또는 의견 정도는 사전에 협의 여부가 있어야 함

000 : 추후 시민들에게 납득할만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명확한 고증자료를 주문할 수 있어야하며, 설명판을 설치할 때 장소성에 대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함.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움. 시민들에게 설득하기 위한 근거가 보완되어야 함.

000 : 이 장소가 처형된 장소에 대한 역사적 고증과 지역주민들이 동의하겠는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인지

000 : 동상 대상 입장에서 역사적 장소를 검토하고, 지역적 장소도 검토해야 함.

000 : 처형된 장소에 대한 것은 역사적 내용은 있음. 전봉준이 종로 사거리에서 자신의 목을 걸어놓으라고 한 내용이 있음.

000 : 시대적으로 명확한 장소는 아니고 현재 달라진 장소임. 그렇기에 장소성, 생애주기 등 기준에 맞게 신청자에게 다시 검토를 요청하면 좋겠음.

000 : 작품에 대한 이야기는?

000 : 역사적 검증을 거친 다음 다시 논의해야 함.

000 : 심의 의견으로 구체적으로 추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임

000 : 역사적 인물동상 건립 심의 기준이 확정되진 않았으나, 위원분들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에 준해 전봉준 동상의 심의에 대해 인물과 장소에 대한 연관성에 대한 역사 전문가의 객관적 평가, 지역주민 공감도 등을 보완 요청해서 차후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음

## 보고 1. 한강 예술공원 조성사업

000 : 3월부터 한강예술공원 사업과 관련하여 7월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임. 작품이 확정단계에서 진행 중임. 전체 배치계획도 입안 중에 있음. 자문을 해주면 반영하여 7월말까지 추가 반영하겠고, 향후 유지보수에 참고하겠음. 자료를 미리 보내드려서 작품설명 우선하겠음. 프로젝트명으로 오픈 프로젝트 기획프로젝트라는 별칭을 썼으나 관람자 위주의 기획으로 계획하였음. 총 27.5식이며 12점 정도를 선보일 예정이며, 이촌 지역과 여의도 지역 2군데 설치하는데, 여의도는 복잡하여 이촌을 중심으로 배치가 되어 있음. 작가명, 배치장소, 예산은 유인물에 기록되어 있음. 여의도는 여의도 한강공원 중심, 이촌은 이촌 자연 복원사업 공원 중심으로 생태공원, 넓은 곳, 나무가 섞인 곳에 배치되어 있음. 현재 기반조성단계에 들어가지 않았으나, 관람객 동선으로 구성하였음. 이촌은 크게 2섹터로 메인 진입로를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으로 나뉘어져 있고 지하철에서 도보로 갈 수 있음. 다음달 정도 최종 이름을 결정할 예정임.

작품설명 : 〈Air Garden〉으로 행사에 맞게 풍선으로 가족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구조물임. 〈둥지〉 새둥지를 재해석한 작품, 8미터 작품. 수명을 다한 노후 어선 3척을 작품으로 재탄생시킨 작품임. 선주가 조업을 하기 어렵거나 어업량이 줄어 지자체에서 보상하고 폐기하고 있음. FRP로 환경파괴의 우려가 있어 지자체와 연계 작품으로 표현하고 있음. 시민 아이디어 참여프로그램으로 작업 추진. 약 80%가 보는 조형성 외에 기능을 가지고 있음. 앉거나 플레이를 할 수 있음. 한강 예술공원을 상징하고 만날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함. 이촌 지역에 약 17미터 면적에 〈바람의 집〉의 스틸 구조물로 쉼터와 휴식을 할 수 있는 작품 설치됨. 작가는 여의도에 시범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적이 있음. 〈나무뿌리벤치〉는 4월에 완성된 후 2달간 시범운영을 통해 보완할 예정임. 〈밤무지개〉 한강의 교각과 다리를 상대로 시민 아이디어로 무지개를 조명으로 재표현하여 실험하고 있음. 한강에서 테스트 후 효과가 좋으면 추진 할 예정임.

〈새로운 구조-한강의 생태〉 한강에 사는 동물이나 생태로 동물을 만드는 작품임 〈강의 흔적〉 과거 전통의 물고기 잡는 방식에 영감을 얻어 자연석, 나무로 작품을 제작. 마이클 토마스 힐이라는 호주 작가의 작품 〈Auditory Memories〉 3주전에 측량을 해서 6미터 높이로 제작 중에 있음. 〈Vertical horizon〉 미루나무를 컨셉으로 작품을 설치. 〈감각의 증폭〉 시안으로 제작중에 있음. 처음 작가들이 종이 1장의 시안을 작성하여 제출한 뒤 기획자와 협의 후 제작 과정을 거침. 〈상상〉, 〈한강나무〉 디지털 소싱 매핑을 통해 미루나무가 없는 곳에 위치해서 자연과 인공의 조화를 추구함. 〈미루나무〉 미루나무 길에 설치되는 스톨, 다빈치 코드처럼 연이어 설치되어 강을 바라보고, 환경의 뷰를 해치지 않는 최소한의 부피를 가지고 있음. 〈꿈〉 한강동물원의 컨셉을 직접적으로 페타이어로 작업함. 환경보호 메시지로 흰 타이어로 백곰을 제작함. 〈Come and go〉 반사경으로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 유도 사인이 될 수 있음.

배치계획이 완료되면 작품으로 사인을 할 예정임. 〈Bird C〉 목선을 만드는 재료를 직접 사용하여 작품을 추진하고 있음. 〈Rain or Shine〉 이반 나바로의 생명에 대한 메시지 전달 함. 〈사색적 허공〉 넓은 평상개념의 작품임. 이탈리아 크래킹 아트의 작품임 동물모양이 테마임. 한강이 자연이 회복된 상태로 펭귄과 달팽이가 설치될 예정임. 〈플라스틱백 플라밍고〉 비닐로 흥학을 표현, 자연적인 메시지를 표현, 〈River Pavilion〉 루크 제람으로 영국 브리스톨에서 물에 떠다니는 작품 설치, 바지선과 연결하여 떠있는 도교를 설치하여 검토하고 있음. 〈궁극공간〉 어선작품. 별도 한 대 한강에서 수명을 다한 어선을 공동으로 제작하고 있음. 리차드 허만이라는 미국 작가인데, 가상현실을 통해 어플리케이션으로 별자리로 가상현실을 볼 수 있게 하는 작품으로 한강에서 13번째 작업을 함. 〈The Elephant〉 개막식에 선보일

작품임 3일만 전시. 비닐로 제작하는 빅토리아 밀러 스위스 작가.  
개요만 안내했음.

000 : 4월에 오픈하고 최종 7월 완성되는 계획으로 들었음.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000 : 35%가 4월 완성 65%가 7월 완성. 실제 완성은 5월 완성됨.  
대다수 작품이 직접 써보고 테스트 과정이 필요함.

000 : 설치한 후 운영은 누가 하고, 운영비는 어떻게 책정되어있으며,  
작품 훼손 시 책임은 누가 지는지. 활용하는 앱을 제작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디까지 운영하는 것인지. 관여하는 범위는?  
7~8월 이후 30%는 떠나갈 것 같은데, 확실한 검토가 되어  
있는지. 관리부분에 대한 답변 필요

000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발주. 에이치에스에드와 시제이가  
계약체결하고 대행사에서 추진. 사업기간은 작년연말에서 7월말로  
작품을 완료하고 행정적인 것은 8월말까지 완료함. 작품은 작가와  
계약을 별도로 추진함. 대행사에서 일괄하여 추진하나 완성시기가  
달라. 작품을 인도받는 시점까지 작가책임. 이후 한강사업본부가  
유지관리 맡음. 그 시기는 7월까지임. 존치기간이 별도로 다름.  
3일에서 생애주기 1년~3년이 됨. 계약의 내용 중 작가의 명확한  
설계잘못이나 제작자의 잘못은 제작자가 수리하게 되어 있음.  
일반 유지보수는 한강사업본부 책임임. 사업단에서 8월말까지  
계약되어 있으며, 이후 한강사업본부에서 총괄 감독해야 함.  
시에서 별도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함.  
한강사업본부에서 보완 설명함.

000 : 유실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000 : 한강공원이라 안전상의 문제, 홍수의 문제, 팔당댐의 수문개폐에  
따라 작품을 어떻게 할 것 인지. 바람의 문제 등 3가지의 문제가  
있음. 시공시 기술지원 부분이 없었으나 수시 기술자문(토목,  
수리, 화재방재)을 거쳐 하나하나 안을 받아 개선해나가고 있음.



사인물의 경우 SNS를 컴퓨터, 모바일 버전으로 제작하고 있음. 사인과 같은 경우 프랑스 에스도와르 강변에 설치된 100여개의 기법을 적용하려고 했으나, 설명과 구글연계, 네비게이션 기능까지 예산과 기간이 걸려 추진하기 어려우나 네비게이션 기능은 추진하고 있으며, 물리적인 작품의 사인은 관람객들이 쉽게 볼 수 있게 유도, 안내 사인을 추진함. 자연적인 재료를 통해 새로운 기법으로 제작하려고 협의하고 있음.

000 : 초기의 계획과 바뀐 것 같은데, 예산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000 : 전체 예산 중 작품제작은 30억 정도이며, 진행 중 작품의 개수와 성격이 변경되어 협의하여 오차범위 좁혀가고 있음. 8~90% 맞추고 있으나 기술적인 부분, 기초적인 부분에 대한 것으로 최종 10~20%는 예비적으로 잡혀있음. 기반조성은 별도 추진함. 본 예산은 작가의 제작설치비 비용임.

000 : 아티스트피는 어떻게 책정하는지

000 : 명시가 되어 있음. 대략 20% ~14%까지 차등적으로 지급하게 되어있음. 4억이면 14%, 1억 미만 17% 정도임. 작가들과 공유했음.

000 : 카테고리가 명확하지 않아 실제적으로 설치되었을 때 테마로 읽혀지는 부분 등 강조하는 부분이 보여지지 않음.

000 : 기획자 입장에서 카테고리를 나눈 것임. 동물원이라고 하면, 동물이라는 생명체를 재해석하여 제작하는 것임. 다분히 기획자 입장에서 한것이라 관람자 입장에서 재구성 해야 함. 그러나 배치는 각 작품 그룹으로 설치되어 있음. 보일 듯 말 듯한 배치 컨셉이 있어 넓은 공간에 설치되어 있음 35개 정도의 작품이라 어느 것에 컨셉을 둘 것인가를 고민하여 시점을 고려했음. 홍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4월 아트스테이션 온더보드라고 바지선을 중심으로 강조하고 7월 정도 한강동물원 자연생태 쪽 공간에 시민들이 많이 찾을 것으로 염두하여 메시지가 있는 내용으로

홍보할 예정임. 홍보팀에서 구체적으로 기획할 예정임

000 : 한강예술공원이라 명칭하였는데, 이 사업이 1단계 사업인지 아니면 끝인지

000 : 개별(별도) 사업임

000 : 한강은 자연적인 뮤지엄적 갤러리로 생각하는데 개별 단발 사업이라 제일 먼저 왜 한강이 자연공원이 아닌 예술공원이 되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야 함. 그리고 홍보관이 만들어지는지

000 : 홍보관 개념은 아니고 온더그라운드라는 이촌에 규모있는 조형물을 만들고 키오스크 개념으로 소개할 예정임

000 : 도슨트를 쓸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설명해줄 사람이 있는지. 해설을 하느냐 안하느냐가 중요함. 넓은 장소에 분산되어 있는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 설명서로 대체하는 것은 무리임. 홍보관이 필요한 이유는 이 사업이 누군가에게는 최소한 실험이자 교육일 수 있고,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이해와 끝나고 나서도 3년 동안은 정보지원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한강을 예술공원으로 만든다면 지역과의 연계와 예술의 교육 청소년, 50+ 교육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을텐데 아쉬움이 있음. 지금 제작하는 작품외에 52그룹의 미루나무도 작품이 될 수 있을 텐데 정합적인 관점이 보이지 않아 아쉬움. 이 사업이 단발적 사업으로 끝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작가들만의 축제로만 끝나는 것 같아 아쉬움.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고 의미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서두에 정의가 필요함. 파일럿 개념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싶음. 비전과 철학이 정리되었으면 함.

000 : 염두하여 추진하겠음

000 : 한강사업본부에서 향후 계속 관리할 수 있는지.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8월말까지는 대행사에서 담당하는데, 그 이후 유지보수 등 물에 잠길때는 어떻게 하는지. 한강사업본부에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지. 재료에 훼손이 되거나 물에 잠기면 문제가 됨

000 : 8월 말까지 대행사에서 담당하고, 유지보수는 재료와 골조를 제작하는 기술적인 검토와 작품별 매뉴얼이 제작되고 있으며, 하자보수의 문제는 내년 8월 31까지 작가와 대행사가 공동책임지게 되어 있음.

000 : 생애주기가 3년인데 1년만 유지되는지

000 : 끝까지 작가가 책임질 수는 없고 통상 1년 책임을 짐.

000 : 8월 이후 안내요원이나 관리요원 등을 배치하여 살펴보고, 일반 공원관리와는 차원이 다른 관점에서 관리하도록 보완 조치가 필요함

000 : 만들어졌다가 물에 잠겨 나오면 훼손되고 떠내려 갈 수 있음. 작품 하나하나에 대해 한강사업본부에서 검토가 되었는지.

000 : 작가가 기획하는 단계에서 침수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 추진함

000 : 쇼케이스, 개막행사, 컨퍼런스 등은 많은 시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인지 고민하고 전문가를 위한 것은 무엇인지도 고민해야 함. 시민과 전문가의 이해가 다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과 계획이 있어야 함. 초기 기획을 설명하는 방식이 철학과 장소가 어떻게 만나는 지점들을 설명하는 부분이 전문가들과 만다는 지점이 잘 안보임. 어떻게 자리매김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함.

000 : 전문가분들의 도움 말씀을 듣기위해 공공예술에 조예가 깊은 여러 분들을 만나 프로그램을 추진하려고 함.

000 : 전체적으로 한강예술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컨셉과 방향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음. 상당한 기간 설치하는 것이면, 방향이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부분이 많이 아쉬움. 지금이라도 이 작업을 진행해야 함. 주제 및 방향을 잡는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시민들과 만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음. 작품을 설치한다고 시민이 향유하는 것이 아님. 이야기가 담겨야 함. 사람들과의 소통은 구조가 있고 그 구조 안에 무엇인가가 있어야 함. 기획자들이 그 무엇이 무엇이라는 제안이 있어야 시민들이 와서 말을 걸음. 구체적인 설명이 좀 있어야 함. 어떤 플랫폼을 쓰던지 시민들과 예술공원이 공유하는 부분을 만들어 주어야 함. 영구설치물이 아니라 3년마다 텀을 두고 간다든지 몇 가지 컨셉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 같음. 구체적인 전략 또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획임. 늦은 감이 있지만 추진바람

000 : 보완하겠음. 현재 상황만 보고해서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작년부터 추진해서 초기에는 있었는데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겠음

000 : 기술적인 보완, 운영적인 보완보다 메시지가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었음 2018년 서울 한강에서, 지금 여기서 등 한강예술공원 사업을 하는 메시지가 있어야 함.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한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주는게 중요함. 작품을 나열하는 것으로 무엇인가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아쉬움. 4월 프레스 인터뷰를 할 때 대책을 세워서 변경해야함. 쉽, 휴, 한강동물원 등은 동어반복적임. 한강은 이미 쉽의 공간임. 공통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공동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며 잘 반영하여 보완해주기를 부탁함.

## 보고 2. 천호대로 상부 작품기획안 심사결과

000 : 2017년부터 자문안건이었던 천호대로 상부에 도시기반 시설 공사로 추진되었음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 하는 것을 목표로 몇 번 자문을 받았음. 2017년 공모대행을 요청하여 공공미술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작가를 지명하여 공모를 추진, 프로젝트 팀의 5주간의 공모를 통해 2월 2일 심사를 하였음. 그 당시에 선정된 작품 결과를 설명하고, 작가의 개선의견 반영, 수정안을

발표하겠음

000 : 천호대로의 전체 복원공사, 도심을 연결하는 아차산 자락의 연결하는 부분에 전망대를 공공예술로서 설치한다는 것이 목표임. 아차산이 복원되는 한가운데 주변의 땅의 이야기들과 가치를 개념으로 자라나는 숲이라는 작업을 시작하였음. 기둥으로 구성된 숲과 같은 공간으로 상부에는 전망 공간, 하부에는 식재의 덩굴이 자라면서 주변과 같이 성장하는 풍경이 된다는 컨셉임.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하는 풍경, 자연에 의한 변화의 장면들을 상상하면서 준공 후 1년, 5년, 10년동안 변화하는 작품을 설계함. 천호대로 상부에서 방문객의 동선을 끌어들이 내부의 동선을 만들고 천호대로라는 컨텍스트를 엮어 대로변에서 전망하는 것을 계획하였음. 최대한 열린공간으로 내부 동선을 만들고 20인승 엘리베이터와 연결됨.

상층부 전망대는 20m 높이에서 자연을 전망할 수 있음.

배면에는 고층 아파트가 있어 전망대 공간에서 시선의 간섭이 있어 뒤쪽에 엘리베이터를 배치하고 한강측에는 전망을 열었음.

하부에는 조경이 펼쳐지고 내부의 코어와 계단을 콘크리트로 만들되 외부는 스틸구조로 만들어 넝쿨들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주변과 조화되도록 상상하였음. 천호대로에서 바라본 뷰도 있음. 공간의 구조물들이 가진 물리적 공간성 뿐 아니라 내부 경험에 대한 시퀀스를 구성하였음. 나무사이로 들어가서 숲속을 거니는 풍경, 내부에서 하늘을 올려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하늘로 올라 서울을 바라본 후 내려오는 공간의 경험을 설계하였음. 숲의 상부와 같은 캐노피에서 주변을 볼수 있게 했음.

화려한 경관조명을 지양하고 주변과 조화하는 조명계획을 하도록 했음. 반딧불 조명은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지만 특정 정각시간에 점멸한다던지 하는 섬세한 조명을 하고, 야간에 오픈을 하면 내부 조명을 해서 주변과 조화를 담도록 하였음. 상부에는 은은한

반딧불과 하부안전조도로 운영하도록 하여으나 공모 심사 시 보완의견 반영으로 전망대 상부에 강한 이미지 형성하여 인지성을 강화하는 것과 숲을 이루는 거친 부분을 보완해 완성하였음. 기존 것과 크지 않지만 24.5m로 지붕을 달고 전망대 면적을 63제곱미터로 조정하였음. 천호대로 방향에서 바라본 뷰에서 숲의 이면 속으로 숨기는 계획이었으나 전망대라는 상부 공간에 대한 공간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바꾸었음. 지붕의 스트럭처를 강화하고 숲을 숨기는 방향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숲이라는 이미지는 유지하되, 기둥을 정리하고 상부에 상징성을 강화하였고 기존과는 다르게 조명을 강화해서 야간에 떠있는 나뭇잎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외부에서도 강하게 인지할 수 있는 풍경을 만들고자 하였음. 원안과 수정안을 비교하였음. 흐트러진 숲에서 상징성이 부여된 숲으로 수정을 보완하였음.

000 : 당선작에 대해 수정 보완 요청 사항으로 도로쪽에서 천호대로를 건너 지나가는 입장에서 저 구조물이 무엇인지 명확히 들어오지 않았음. 공사를 하다 만 느낌? 명료한 형태감이 없고 해체적이었음. 어지러운 조형들이 서있어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았음. 형태의 외곽선이 정돈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이었음. 수직적인 개념을 띄지 않는 선에서 명확한 전망대로서의 이미지가 포함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림, 당선작이 되었던 중간단계의 형태는 문제가 없었을 것임. 기둥들이 정연하게 서있고 그 위에 타원형의 유리 전망대가 있었음. 둘을 다 없애지 말고 보완해 주면 좋겠다고 말씀 드렸음. 기대했던 내용이 잘 반영된 수정안으로 보임

000 : 저희 개념의 시작이 공공예술로서의 풍경이나, 프로그램이 강한 전망대이다 보니 전형에 대한 20세기적인 수직적 공간, 남성성들을 어떻게 해체할 것을 고민하였음. 숲이 복원되고 오브제가 아닌 풍경으로서의 장소를 만들고자 하였음. 대중들이 느끼기에는 전망대라는 인식에 있어서 흐트러짐이 강한 것 같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였음.

- 000 : 원안이 좋다고 생각함. 전망대라는 기능이 숨어있고 풍경들을 쪼개주는 특별한 느낌이 있음. 낮에는 뭔지 모르겠지만 밤에는 드러나는 묘한 장소로 보이는데, 수정안에는 그런 느낌들이 사라져서 어정쩡한 느낌임.
- 000 : 오늘 잘 뽑아주신 것 같음. 둘중 뭐라도 좋을 정도로 맘에 드는데 오히려 정리되지 않은 느낌이 서울의 시내를 생각하면 원안이 더 튀지 않을까 함. 각도가 휘어진 무성한 느낌이 장점으로 느껴짐. 절충안이 필요함
- 000 : 이미지로 보기에 원안이 나운데, 현실화 했을때는 콘크리트인지
- 000 : 지붕을 과하게 갈 때 RC구조로 가는 것을 생각함
- 000 : 어려워 보임
- 000 : 지붕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콘크리트일 경우 하부를 보강해야 할 수도 있고, 조형적 상징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CG에서 보이는 것처럼 잘 보일까 남루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함, 원안을 보완하면 좋겠음. 이미 높이가 있어서 이미 수직적임. 대로변에서 보면 봉이 하얀색일텐데 20미터가 넘는 구조물이 가진 덩어리감이 충분할 것임. 지붕을 한다고 해서 하부 구조가 안보일 수도 있음
- 000 : 수정안에 있는 위의 모습이 형태의 의미가 있는지
- 000 : 원래 아이디어는 컨셉 모형에서 나무위에 집같은 것이 만들어 진다는 개념으로 나뭇잎들이 공간을 만든다는 생각이었음. 이것을 구체화 하면서 구체적으로 구현하고자 하지는 않았음. 자연스러운 천정을 만들고 계획하였으나 수정을 하면서 대중지향적인 상징성으로 보자면 나뭇잎일 것임
- 000 : 나루터가 있어서 배 모양으로 하였다고는 하는데, 수면 위의 배의 윗부분으로 볼 수도 있어 나뭇잎으로만은 볼 수 없음
- 000 : 우리가 어떻게 이 공간을 경험할까를 생각해 보아야 함. 작품이

좋음. 작은 요소들이 모여서 과정적으로 뭔가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고, 담쟁이가 올라가면서 형태가 변할 것이라 근사하나 그 주변에 대한 고려가 적었음. 정형적이지 않도록 길을 연결해서 갈 수 있으면 좋겠음. 원래 컨셉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면 형태가 강조되지 않으면 좋겠음. 엘리베이터도 두꺼운 기둥이 되고 더 정제해서 과정에 충실하면 좋겠음. 타워라고 하는 것이 갖는 원래의 이미지를 깨면 좋겠음. 접근로와 조경 등과 함께 경험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듦.

000 : 우리의 의도는 원안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는 형태를 지우는 것이었음. 수정안에서는 형태를 강조하는 것임

000 : 왜 엘리베이터 2대인지

000 : 제안 기준에 2대였음

000 : 3개의 줄기가 있음 스텐도 두꺼운 것과 장식적 가지가 있어 두께가 3개임. 1층 부분에서 연결이 되어있는지

000 : 상부에 슬라브로 연결 되어있음

000 : 최상층 하부 슬라브가 1층에서는 지붕인데 그 높이가 10여 미터 떠있음 1층은 전체가 오픈되어 있는지 별도의 캐노피가 있는지

000 : 캐노피가 없음

000 : 3개의 영역이 있을 것으로 보임. 외부, 내부, 기둥 3공간임. 1층에는 작은 지붕이 있어 캐노피가 있고 기다릴 수도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음

000 : 1층 공간이 차임벨로 상부를 가려 시각적인 것 뿐 아니라 소리를 경험하는 코어 공간을 만들어 놓은 부분임

000 : 1층 가운데 영역이 구체적이지 않음

000 : 하늘을 올려다 보는 컨셉이었음. 숲이 형성 되고 공간을 나무로 캐노피가 되는 것을 상상하였음

000 : 컨셉적 공간경험이지만, ev가 두 개가 있다면 느낌이 하나도 서지



않을것임. 원안이 좋기는 함. 천정을 건드리면 다 건드려야 함. 스테인레스를 무작위로 하는 것은 치수화 하고 구현하기에는 무리 있음. 질서와 장식적 부분을 구분해서 집중하고 숨을 것을 빼야 하는데 컨셉처럼 그림을 그려와서 구조체가 없는 오른편, 꼬리 부분이 영성하게 보일 것이라 모형을 만들면서 보완하면 비계처럼 보이지는 않을 것임

000 : 구조적인 실시설계에 들어가면 구조기술사와의 협업을 통해 섬세하게 할 것임. 250,120 스틸파이프로 힘을 받는 것과 장식부분을 구분할 것임

000 : 중간에 유리가 있는지

000 : 있음.

000 : 사람이 타고 올라가지는 않을지

000 : 안전하게 설계하였음

000 : 걱정한 것은 서울이라고 하는 시각환경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데, 서울은 수직적인 구조로 가득 차 있고 그 안에 형태를 깬다고 하는 것이 의미 있을 수 있음. 그래픽 속에서 원안 그대로 두되 빼죽거리는 것을 빼면 수정안과 다름이 없음. 유리로 둘러싸인 전망대 공간이 아웃라인을 형성한다는 것으로도 (지붕을 추가로 없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생각함. 담쟁이들이 자라면서 형태를 형성할텐데 자연의 형태가 형성되는 것 마저 열기설기 되어야 하는지. 질서정연한 형태가 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지

000 : 대중적 소통은 중요함. 2안은 설명할 수 있는 층위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음. 커뮤니케이션은 더 강하게 할 수 있다고 봄

000 : 지금의 원안에서 제일 위의 지붕은 두고 선만 정리하자는 뜻인지

000 : 실제로 전망대가 흐릿함. 그래픽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공간 안에 있을 것임. 보이지 않는 전망대가 컨셉이니 허상으로 보일 수 있음. 모형을 만들던 보완을 하던 지붕까지 없지 않더라도 전망대

부분이 명확히 인식되도록 조정을 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어떨까 함.

000 : 엘리베이터는 과도해서 기술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조정하면 좋겠음

000 : 버스로 단체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산책하는 곳인데 25인승 두 개는 과도함. 도기본이 조정해야 함

000 : 천호대로 공사는 실현성에 있어서 너무 전문적인 것만 얘기하면 어려움. 전문가가 아닌 시민들이 보는 관점도 중요한 부분임

000 : 원안(기둥들을 전망대 위까지 올림)에서 전망대 중간까지 불규칙한 형태라도 내려서 하면 어떤지. 필요하다면 전망대를 수정안의 중간까지 높이를 높일 수 있는 지도 생각해 보면 좋겠음. 슬라브가 부각되면 좋겠음.

### 보고 3. 녹사평 공공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서면심의 결과

000 : 마스터플랜을 입찰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위원님들께 서면 요청을 드렸고, 10분 위원님이 참여하여 원안승인 5, 조건부승인2, 그래서 가결된 상황임.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맥락 속에서 녹사평의 개념을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하면서, 다만 실현성과 구체성에 대한 지적이 많음. 인력, 예산계획, 플래닝, 단편적인 기획안 같다는 의견이 많음.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기획안이(추가) 주관적 아이디어로 보이고 내외부 연결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전반적 다수결에 의해 가결됨. 기본 기조는 가지고 가되, 앞으로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계속 논의 중임. 설치작품으로 보였던 아트리움, 지하5층, 지하4층에 들어가려 했던 작품에 대해선 호응이 좋음. 팜스토어와 식물병원에 손을 많이 들어주심. 이 의견에 대한 결과는 이 안에 대해서 발주가 나갈 것이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자문을 주시면 이를 반영해서 제안사들에게 제안을 받을 예정임.

000 소장이 마스터플랜을 추가 수정할 예정임. 공간의 노후도,

규모에 대해서 27억이 원활하게 쓰일 만큼이나에 대해서는 고민이 되어야 하는 시점임. 입찰서에는 선택과 필수 프로젝트로 나누어서 나갈 예정임. 이걸 필수, 나머지는 선택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음. 또한 가지 이슈는 대부분 설치위치라고 해서 공간을 분할함. 그런데 이 분할한 공간이 없이 가는게 좋을지, 아니면 아예 설치위치를 푸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이슈가 2번째임.

세 번째는 지하철역이 하루 공사할 수 있는 시간도 적고, 안전상의 문제, 기술적인 측면이 많이 요구되는 공간임. 어떤 업체들이 참여할지에 대한 조건을 고민하고 있음.

예술기획업이라는 산업체 구분 없고 조형물을 만들 수 있는 업체 자격이 드물기 때문에, 본인들의 실적을 가지고 참석할 수 있게 해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풀어야할지 고민임. 꼭해야 할 것과 선택적인 것을 고르는 것이 좋을지, 고른다면 어떤 것을 고를지에 대한 자문 부탁드립니다

000 : 컨셉은

000 : 보타닉 서울, 지하예술식물원임

000 : 기본구상을 했으니깐 그다음 단계로 갈 때 기본구상과 컨셉을 구체화시키지만 업체가 제안을 가져올 때 다시 이야기해 보는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

000 : 어느 정해진 사이트에 공공미술을 한다면 큰 어려움이 없는데 녹사평역은 사이트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사업성격이 정해진 것도 아님. 이게 무언가 더 구체적으로 되지 않으면 발주처에서 진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기획자가 들어온대도 기획자가 선정되기 전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보임. 그래서 더 한 단계 거쳐서 마스터플랜 안에서 사이트, 예산을 정하고, 계획이 잡혀 있어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음. 계획은 좋으나 구체성이 떨어져 보임

- 000 : 사업별로 예산이 붙어있기는 한데, 실제로는 어려워 보임.
- 000 : 실제 식물원이 되려면, 27억에 반이상이 인프라 비용이 가고, 나머지로 그 금액이 매년 나간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잡아야함.
- 000 : 녹사평역은 복합적 공간이고 한작품일수도 있고 여러작품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왜 그래야하는지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없음. 내부에 공간도 연속되어 있다 보니 뭔가 몽글몽글한 엄청난 작품일 수도 있고, 그게 단계적으로 실행될 수도 있음. 기획자가 여러 개의 작품을 가지고 전시처럼 만들 수도 있음, 내·외부가 개념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컨셉은 매력적일 수 있으나 그 작품의 기획이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있음. 자연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맥락으로 볼수 있음. 기획자의 오픈된 체계로 하고 그걸 성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업체를 선정했으면 함. 작품기획안을 우선 고르고 거기에 대한 업체를 차후에 선정하는 것이 맞다고 봄
- 000 : 마스터플랜으로 공모를 낸다거나 하는 것은 어려워 보임. 제안된 사업들을 포함해서 “식물, 정원” 컨셉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가장 효과적인 아이টে임을 먼저 찾아내서, 지금 꼭 들어가야 하는거, 아트리에움에 공중에 뭔가 설치하는거, 그건 필요함. 세 곳 정도가 가능해 보임. 거기에 지하정원 개념을 살릴수 있다면 식물병원이니 팜스토어 모두 실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음 모든 프레임을 한업체가 진행할 수 없다고 보고 그 큰 프레임을 어떻게 구성할지 공모를 하던지 일단 가능한 안들을 취합을 하는 것이 좋겠음
- 000 : 작품의 결을 잘 모르고 기획자와 같이 들어와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우려한 바가 있음. 문화컨텐츠, 기획, 문화행사 등, 전시장 구축 등을 모두 포함해서 실적을 열어두기는 함. 만약 실적을 뺀다면 순전히 예술기획, 예술 프로그램을 하는 것으로 해도 상관이 없음. 이게 실제로 역량이 있는 업체가 들어오지 않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 실적을 봐야 할 것 같음.

000 : 여긴 조각, 여긴 벽화, 그 나름대로 마스터플랜을 짜서 작가들에게 안을 받아서 그걸 그래픽 작업해서 들어오는 업체를 뽑을 수 밖에 없음

000 : 기술적인 실적이냐 능력을 봐서 선정해서 진행하는 것, 아트리움에 설치하는 것임. 사실 굉장히 기술이 필요한 것임.

000 : 작품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획자가 운영까지 하고, 업체가 설치에 해당되는 것만 하는 것은 가능해 보임.

000 : 마스터플랜은 기획과 구분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기획안이 들어 온게 맞는 것 같음. 그랬을 때, 기획안이 만족스러운지. 그럴 경우 업체만 선정하면 되는지. 그것도 논란이 있기 때문에 다시 기획공모부터 하자는 의견이 되는 것임. 담당자는 사업자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획은 실행단계까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업체가 실행이 가능한 기획이 나올 것이고, 그럼 어떻게 컨소시엄이 될것이고 이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음.

000 : 하나는 조형적인거고, 하나는 식물원 컨셉임. 둘을 같이 설치하는 사람 찾기 어려울 것임. 식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컨셉이라 한다면 그것을 중요한 컨셉으로 따로 기획자를 둘 수 있는 것은 아닌지

000 : 프로세스가 있으니깐 27억을 가지고 보타닉 서울은 일시적 프로그램 컨셉으로 살리고, 나머지는 이 프로젝트 2개만 한다면 큰거 2개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듦

000 : 서면이지만 심의는 된 상황이고, 여기서 제안한 컨셉은 채택이 되었다고 봐야 함. 가장 큰 테마는 식물이고, 그리고 식물과 설치미술을 구분할 수 있는지. 그것도 아니라고 봄. 식물도 공공미술 사업에서 풀어야하기 때문에 이를 분리발주 하면 컨셉이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봄. 그리고 식물을 주제로 한다는 것은 가져가야 하겠음. 아트리움 작품은 거기까지만 정해주고

나머지는 기획자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자유를 주고 진행하게 해서 아트리움도 할 수 있고, 두 번째 단계로 일괄 발주를 하고 싶은 것임.

000 : 우선순위를 정한 건 각 사이트와, 사이트에 대한 구체화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걸 가지고 기획공모와 작품공모를 같이 하는 것임.

000 : 예상되는 작가 군과 예상되는 포트폴리오군을 정리해서 이미지를 넣게는 해둬. 다만 큰 주제는 지하예술식물원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함

000 : 턴키로 주면, A라는 기획자가 기획과 설치까지 하는 것인지, 그럼 기획자가 업체를 데려오는게 낫지, 업체가 작가를 들어오는 것은 아님.

000 : 컨소시엄에도 기획자가 주가 되는 것이 있음

000 : 기획자가 하게 해서 업체에게 일을 주면 됨

000 : 실행사업자가 주체가 되면 안되고, 기획자가 주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임.

000 : 공동도급으로 컨소시엄 가능하게 하였음.

000 : 기획안이니 작품 기획내용은 지우고, 아트리움에 들어갈 설치 조형물, 지상에 들어갈 설치작품 등으로 적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음.

000 : 애초에 인용된 것에 대해서는 인용하되, 푸는 방법은 더 열어놓겠음

000 : 지금도 보타닉으로 가는 것임. 거기에 식물을 키워서 주민들과 같이 가고, 기획자와 업체가 같이할 수 있도록 함

이것으로 2차 심의위원회를 마치겠음.